

중국 동북공정과 고구려 역사 정체성에 대한 소고②

안 동 유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춘천영업소

4. 중국(한족)의 전통적 역사 인식 및 사서 등 실증적 자료의 논리적 분석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역사의 인식을 바로 잡기도 해야 하지만 서로 관계가 맞물려 있는 중국 역사에 대한 인식도 바로 세워야 하며 우선 중국에 대한 막연한 허상과 대국 이미지부터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중국 강역을 다시 고찰 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큰 나라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일찍이 중국이 이렇듯 큰 영토를 확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은래의 지적대로 오늘날의 중국 영토를 확정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은 만주족(여진족)이다.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워 주변 유목 부족과 국가를 정복, 영토를 넓혔고 청조 멸망으로 자연스럽게 그 유산을 이어 받은(티벳은 한국전쟁 후 마오쩌둥이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오늘날의 중국이 힘 안들이고 사상 최고의 강역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지도를 보자.

티벳을 떼어내고 회교도 지역인 신장 위구르 지역 또

한 제외하고, 유목민의 무대였던 내몽골 일원을 빼고 거란 및 여진족의 발흥지인 요동, 요서 지역 등을 포함한 만주 곧 현재의 동베이(동북) 삼성을 제외하면 사실 중국의 고유 영역은 고대부터 명나라까지(나중에 보겠지만 한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시기는 정작 얼마 안 되고 이민족이 지배하던 기간을 뺀 한족 왕조의 시대만 보면) 대개 현재의 1/3~1/2 사이에 국한된다.

그렇게 강대하였다던 당나라 치세에도 토번(티벳)의 위협을 벗어나지 못했고, 한고조 유방도 백등산 전투에서 흉노에 포위돼 거의 항복하다시피 화친해 세폐(해마다 바치는 공물로 주로 비단과 금, 곡물)를 바치며 황실 여자를 흉노 왕 선우에게 후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중국 한족 스스로 자기들의 영역을 설정한 경계선(오늘날로 하면 국경선)이 만리장성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스스로 만리장성 이내로 자기들의 영토를 국한했던 중국 측의 인식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해 주는 강력하고 살아 있는 증거이다.

그래서 장성 이북을 제외라 하여 제외민족인 오랑캐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유사 이래로 중국은 만리장성 이내의 강역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끊임없는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중국이 만주를 직접 통치하거나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껏해야 이이제의 일환으로 주변 부족, 국가들끼리 분열하도록 만들어 중국 본토에 대한 위협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이민족 관리 차원의 영향력 행사 수준을 넘지 못했다.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멸절한 만주의 청 태조 누루하치를 명나라 장군으로 임명하여 벼슬과 함께 재물을 주어 달래었던 사실은 숨기고 마치 자기들의 부하 장수 정도로 왜곡하여 만주를 지배한 것처럼 만든 명분 위주의 춘추필법과 중화주의 사관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왜 등 주변 국가의 왕들에 이름 뿐인 벼슬을 내려 형식상 중국의 신하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사군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고조선 왕조를 멸망시켰지만 한족이 이주, 그 강역을 직접 전면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보내거나 현지인 중 협력자를 관리자로 포섭해 군사 기지 형태로 위협 세력이 생기지 못하도록 관리한 것이다.

그것도 고조선의 제후국이나 속국으로 보이는 고구려, 부여 등의 존재로 만주 일부와 한반도 일부에만(논자에 따라서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고 만주 일부에 존재했다고 하므로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존재했고 또한 토착 세력의 항쟁으로 오랜 기간 존재하지 못하고 곧 폐지되었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 붕괴 후의 만주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지만 실질적, 전면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지배 계급의 포섭과 거란족을 동원해 토착세력 견제로 명맥만 유지했으나 곧 토착세력의 항쟁과 발해의 건국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음을 봐도 알 수 있다.

오히려 만주를 기반으로 한 청나라가 중국을 정복함으로써 비로소 만주가 중국(한족을 중심으로 한)의 영

역 안에 처음으로 편입된 것이다.

이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별도의 논증이 필요 없는 일이다.

만주는 독립된 민족들의 세력 각축장으로 중국의 지배권이 직접 미치지 못했고 중국이 강성할 때 주변 유목부족과 새외민족을 아우르는 정도의 관리 영역에 포함되었을 뿐이다.

또한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한족의 왕조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대부분의 기간은 이민족에 지배 받거나 침입을 막기에 급급하였다.

은나라는 끊임없이 흉노족에 시달리고 화친을 위해 비단과 금을 바쳤으며 심지어 주나라는 수도를 옮겨야 했다. 그 유명한 주의 동천이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본 바대로 한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삼국시대 후 이른바 5호 16국 시대라고 하여 화북은 이른바 오랑캐의 무대로 바뀌고 많은 한족이 강남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요, 금, 원 청 등 이민족의 지배가 중국 대륙을 압도했다. 이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다.

더구나 중국 측의 많은 사서가 만리장성 밖의 민족에 대하여 이민족으로서 기록하고 있고 한족 자신과 분명히 구별하여 다루고 있다.(물론 오늘날의 한족은 고대의 한족과 많은 차이가 있다.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개념이다. 역설적으로 이민족의 피가 많이 섞여서 또한 다민족 국가라서 오랑캐라던 이민족의 역사가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삼국지 위지동이전이고 요동과 한반도를 동이족의 영역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의 많은 사서들도 한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만주와 한반도 일대의 여러 부족과 국가를 같은 족속, 동류요 말과 문화가 같은 갈래의 집단으로 서술하고 있다. 항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5. 언어, 민속과 문화, 생활 풍습 및 민족 의식

중국은 문화와 민족의 멜팅팟(용광로)이라고 한다.

미국도 멜팅팟이라 표현하지만 문화와 민족이 녹아 들지 못하고 각각 독립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흑인, 히스패닉, 유태인,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중국, 아시아계 등 수많은 국가안의 사회 집단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녹아 소멸되고 소수 민족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몇몇 민족이 있을 뿐이다.(자치구 등)

다시 말해 만주인(여진인)이 독립된 사회와 문화를 누린대든지 저, 갈, 강, 흥노, 선비나 거란족 등이 자치 사회를 유지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소멸된 많은 민족의 문화나 전통이 일부 영향을 끼치긴 했어도 전면적으로 계승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역사를 계승했다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정치사적으로 왕조를 이어갈 뿐이다.

더군다나 정치사적으로 왕조를 이어받지도 못한 고구려, 부여, 고조선 등의 나라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들의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문화와 생활 풍습, 민속 등 전통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의 기록이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 기록인 삼국지 위지동이전이나 수서동이열전 등 많은 사서에도 고구려, 부여, 백제, 신라 등을 중국과 다른 정치, 문화 집단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그들 상호 간에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더할 나위 없는 객관적 입증 자료다.

중국 측 기록은 일관되게 한반도, 만주의 고대국가들을 같은 조상을 가진 동류나 별종으로 일컬어 혈연 또는 핏줄 관계가 있는 집단으로 기록하고 있고 한결같이

같은 말을 쓰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고구려를 부여의 별종, 백제를 고구려 또는 부여의 별종으로 서술해 같은 핏줄의 갈래임을 증명한다.

고구려와 백제를 중국과 일본에서도 고마 또는 구마라고 혼동하여 불러서 한 종족임을 알 수 있는데 단군 신화의 곰과 관계있는 말이다. 또한 신라 사신을 고구려나 백제 사신이 통역하지 않으면 말을 통할 수 없다고 기록해 같은 말을 쓰는 사실을 명확히 증거하며, 일본의 기록도 발해인(발해는 일본에서 고구려로 표기했다)이 신라인의 통역이 아니면 뜻을 통할 수 없다하여 그 객관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상으로도 동일한 언어 생활권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골, 별, 달, 라(누, 로, 노 등과 한 갈래) 등의 땅을 뜻하는 말을 중심으로 땅이름을 살펴보아도 쉽게 그 동질성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땅이름 홀승골의 골이나 미추홀(몽골어 ‘ㅎ-kh’은 우리말 ‘ㄱ-k’과 상호 전환됨 : 한-칸)의 홀은 골로서 한자 기록상 차이일 뿐 한 말이다. 이는 오늘날 밤골, 고을 사포 등의 말로 남아 온다.

달도 아사달의 경우 몽골어 달(땅)과 같은 말이며 지금은 들로 변환되어 쓰인다. 그 흔적으로는 응달, 양달의 달과 비탈의 빗+달(비스듬한 땅)의 형태로 남아 있다.

고조선의 朝鮮은 아침과 고을의 혼독(뜻으로 읽는 이 두)으로 한자 소리가 아닌 뜻을 읽는 것이다. 아침 고을이 그것인데 이는 아침의 옛말이 ‘아사’이므로 아사고울(골)이며 그 뜻은 밝은 아침의 땅이 된다.(아사는 현재 우리말에는 남아 있지 않고 일본말 아사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뜻도 아침이다.)

골은 달과 같은 뜻이므로 조선을 아사달에 도읍했다고 하는 것이다. 고대에는 성읍 국가 체제이므로 성이름이 곧 나라 이름이 된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조선과 아사달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별과 라에 대해서는 이미 국어학계에서 입증된 부분
이므로 별도의 논증은 생략한다.

문화와 풍습 면에서 보아도 중국 측의 기록에 부여
의 영고(맞이굿)와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삼한의
단오와 시월, 상달 등 농경, 특히 추수와 관련된 감사
축제나 제사 성격의 행사에 대하여 중국에 없는 특이
한 풍습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유사성에 대하여 서술
하고 있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는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춤추
고 노는 모습으로 축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서로
비슷한 태양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축제 마쓰리(맞이굿과 어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이어지고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추석
이나 대보름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고구려 고분의 씨름 그림에 대하여 보면 이
는 중국에 없는 것으로 그 원형 그대로 전형적인 우리
민속 운동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몽골 씨름
'보흐' 나 일본의 '쓰모' 에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

음식으로는 아차산성에서 고구려 병사들이 시루떡
을 해 먹었던 시루가 발견되어 현재의 우리 음식 문화
와 맥이 이어지고 드라마 '대장금' 에서도 보았듯이 맥
적이라 하여(맥은 고구려족을 이르는 다른 이름이다.)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 것이 있다.

또한 온돌이 한반도와 만주 일원에 분포하고 이는 우
리 민족 특유의 난방 문화로서 고구려와 발해까지만 유
적이 발견되고 중국에는 전혀 없는 것이다.(물론 중국
북부 일부에 부여 한편에 직접 난방 하는 칸이라는 것
이 있지만 우리의 온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고구려를 비롯한 고대국가의 생활 도구나
의류, 집의 형태 및 맥궁(활)을 비롯한 무기들이 후세에
전승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사소한 유물의 예는 이미 밝혀진 것 만

해도 상당히 많으나 이미 든 예로도 충분하여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다.

6. 에필로그

역사는 약탈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왜
곡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동북 공정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중국 대사
관 앞에서 피케팅 등 시위로 대처하려고 했다. 넌센스다.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학문으로서 동북아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바보 같은 주장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충분히 논증하면 저들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부여를 자기 역사라고 우기는 저들과 세계 학자들에
게 옛 백제의 서울인 사비성을 지금 우리가 뭐라 부르
는지만 알려줘도 부여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지 알 것
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인공 연개소문이 고구려 막리
지(마리치)였으며 오늘날 한국의 어린이들이 즐겨 듣고
보던 라디오 드라마와 만화영화가 '마루치' 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흉노의 왕비를 알씨라고 하며 우리가 예부터 귀족 여
인을 아씨로 부른 것, 혁거세의 왕비가 알영인 것과 알
영정에서 태어난 것, 마루치의 상대 소녀는 '아라치' 인
것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국력으로, 외교력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다. 국가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
할에 그쳐야 한다. 우선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자세와 그 실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우
리의 고대사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객관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